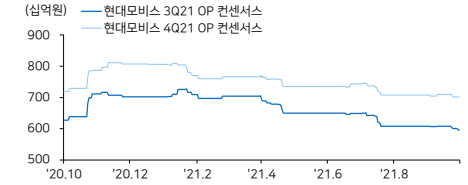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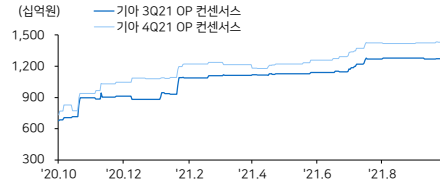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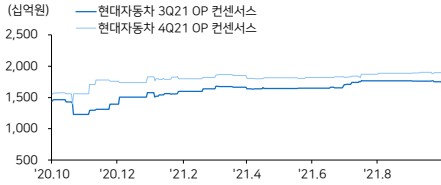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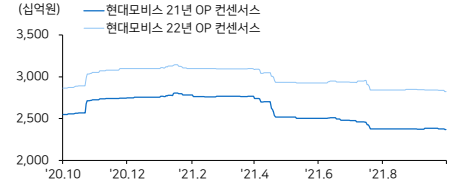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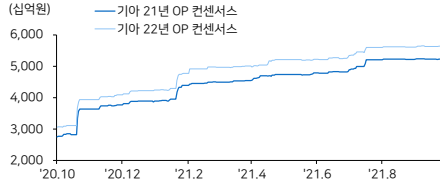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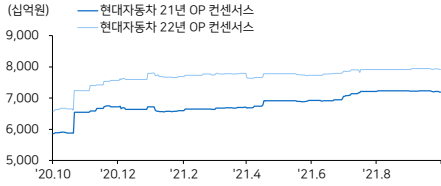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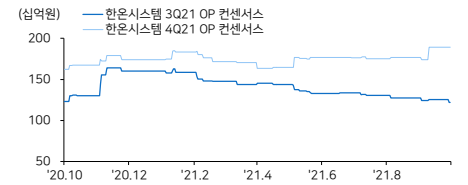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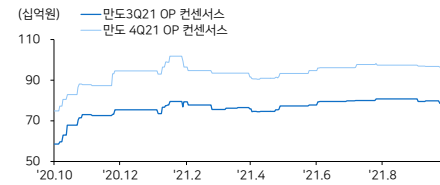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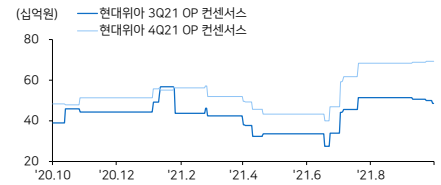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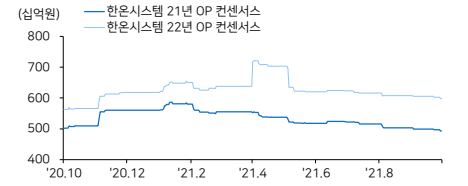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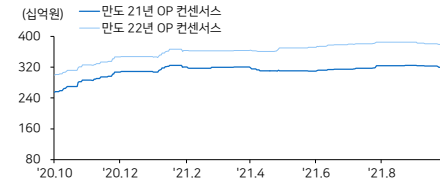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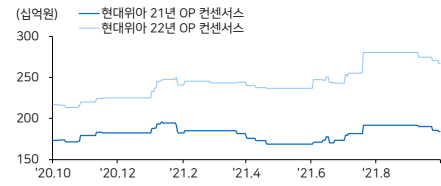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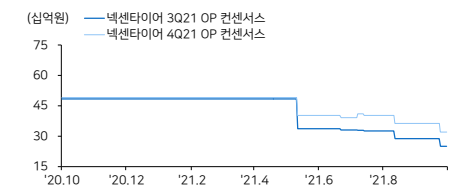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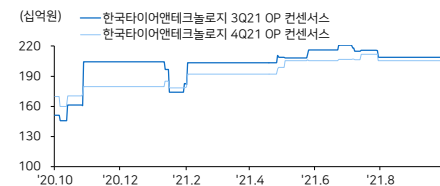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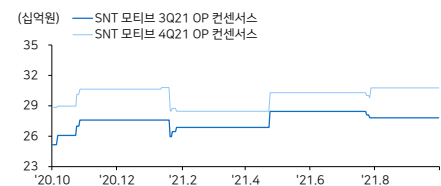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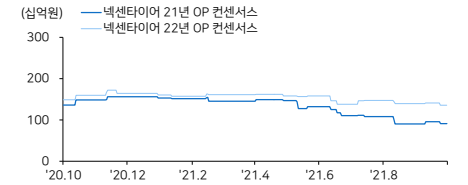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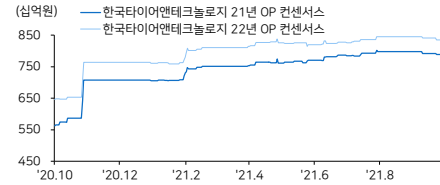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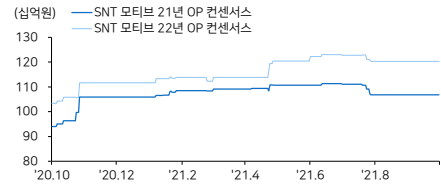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11월 반도체 공급 충분'...연말 후생산 역설 밝는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기아 11월부터는 반도체 공급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고 연말 생산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 하연태 현대차 사장은 11월부터 반도체수급 원활화 노조에 기존 목표 대비 10%의 생산차질을 만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https://bit.ly/3DFKpgi>

현대차 아이오닉5 호주서 2시간 만에 '완판'...온라인 판매 성공 '가늠자' (THE GURU)

현대자동차 E-GMP 기반 첫 전용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5'가 호주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두 시간 만에 240대 완판을 기록. 높은 관심으로 이날 온라인 주문 접수 중 홈페이지가 마비됨. 호주에서는 향후 온라인 직판으로만 판매할 계획.
<https://bit.ly/3mXp9f8>

내년 후 비싸진다...원자재에 상승에 개소세 인상까지 (데일리안)

자동차 가격이 내년 초부터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자동차용 강판과 반도체 등 원자재·부품가격 상승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커진데다, 국내세 감면 정책도 연말로 밀리면서 실구매가가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https://bit.ly/3JoizA>

3분기 중 전기차 판매 1위는 '홍콩 미니'...테슬라 모델3 제쳐 (조선비즈)

중국 우량자동차의 '홍콩 미니 EV'가 테슬라를 제치고 지난 3분기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로 등극함. 1회 충전시 120km 주행 가능하지만 한화 500만원의 저렴한 가격이 인기 요인. 내년에는 컨버터블모델도 양산할 계획.
<https://bit.ly/3MrVbsZ>

현대차 북미시장 '내년 미국서 전기차 생산 목표'...앨라배마 공장 증설 (THE GURU)

호세 무노스 현대차 COO는 '22년 미국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앨라배마 공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언급함. 이를 위해 미 정부의 세금공제 혜택이 비노동조합 공장 생산 전기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
<https://bit.ly/3IfOoDm>

현대차·기아, 두산퓨얼셀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운영 (뉴스1)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두산퓨얼셀과 새로운 방식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운영함.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수소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 울산테크노파크는 해당 설비의 운영과 지원을 담당할 예정.
<https://bit.ly/3IGSWd>

EIA,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소비 크게 증가할 것" (에너지신문)

EIA는 2023년에 선진국에서 내연기관차 판매가 최고점에 이를 것이며, 이후 전기차(EV) 판매가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함. 또한 글로벌 CO2 배출량은 EV 판매 증대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함.
<https://bit.ly/2XhZPwy>

중 전기차 수출 올해 420% 폭증...들어들면 테슬라의 힘 (머니투데이)

올해 1~9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136만대를 돌파했으며 이중 전기차 수출량이 19만5,000대를 기록함. 테슬라 수출량은 97,500대로 전체 전기차 수출 물량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https://bit.ly/3FMKzJ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